



보도자료

담당자 천지연 연구위원(3775-9018)
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4. 10. 24(목) 조간부터
(온라인 2024. 10. 23(수) 12:00부터)

매수 총 3매

보험연구원, 『차량데이터 이용 현황 및 보험회사 시사점』 보고서 발간

“보험회사는 차량데이터를 이용한 보험상품의 개선 및 확장 방안 모색해야”
“차량데이터 활용 확대를 위한 데이터 규제 방향 논의 필요”

○ 보험연구원 천지연 연구위원(금융제도연구실)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량데이터 시장과 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선 및 확장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험회사 시사점을 도출한 『차량데이터 이용 현황 및 보험회사 시사점』 보고서를 발표함

○ (차량데이터 시장 전망) 차량데이터의 활용 범위가 차량관련 산업에서 이외의 산업*까지 확대되고 있어, 국내외 차량데이터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

* 차량데이터의 활용은 차량 관련 산업의 경우 차량 관리, 리스, 주차, 긴급출동 서비스, 교통상황 수집 등에, 외부 산업에서는 광고, 에너지 기업, 보험, 날씨 등에 활용되고 있음

○ (UBI 시장 국내외 전망) 향후 국내외 UBI 시장 규모는 커넥티드카의 성장, UBI 상품 대중화 등에 따라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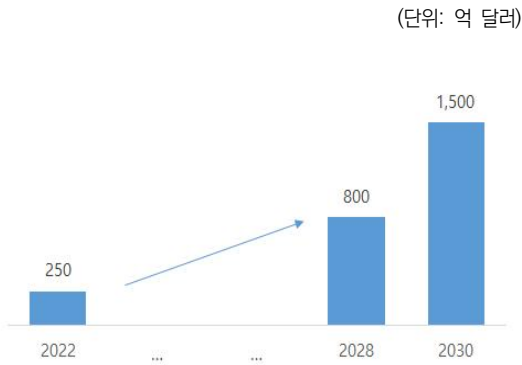
• 글로벌 UBI 시장 규모는 800억 달러~3,000억 달러 수준으로 기대되어 향후 자동차 보험의 20~40%가 UBI 상품이 될 것으로 예상됨

• 국내 UBI 시장 규모도 향후 커넥티드카의 성장에 따라 국산 커넥티드카의 데이터 공유가 가능할 경우 7,992.2억원, 외산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데이터 공유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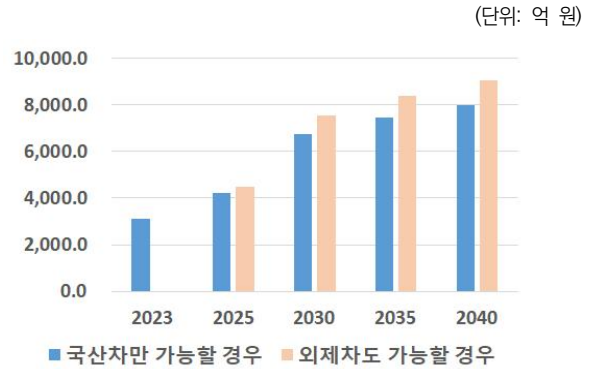
9,061.8억원까지 보험료 환급*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됨

* 참고로 2022년 한 해 동안 주행거리 특약으로 1조 1,534억원의 자동차 보험료가 환급되었음

<그림 1> 글로벌 UBI 시장 규모 전망



<그림 2> 향후 커넥티드카 특약 환급 규모 추정



- (차량데이터 활용 확대(1)) 차량데이터 활용으로 리스크평가모델 개선, 상품 및 서비스 개선, 사고 처리비용 감소 등으로 기존 자동차 보험상품을 개선시킬 수 있음
 - 차량상태, 안전장치 장착, 졸음·주위산만 등의 운전자 상태 등 보다 다양한 정보에 따라서 보험료를 차등화하는 등 리스크 평가모델 개선이 가능할 것임
 - 안전운전을 위한 실시간 피드백 제공, 사고시 보험 청구관리 간소화 등 기존 자동차보험의 상품 서비스를 개선할 수도 있을 것임
 - 사고시 긴급전화 서비스 자동화, 사고 분쟁 축소, 보험사기 탐지 등 사고 처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사고처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

<표 1> 차량데이터 활용 확대(1): 자동차 보험상품 개선

리스크 평가모델 개선	상품 서비스 개선	사고 처리비용 감소
- 차량상태, 정기적 차량점검, 차량 내 안전장치 등(예: BMW와 도요타, Swiss Re 간 협력)을 반영 - 운전자 상태(졸음운전, 주위산만, 심박수 등) 등 반영	- 안전운전 피드백(운전 중 스마트폰 이용 경고 등) - 청구관리 간소화(예: OCTO Telematics의 충돌감지, 중국평안보험의 사고 보고 자동화 등)	- Emergency Call과 GPS 기록으로 사고위치 전송 - 사고경위 분쟁축소(예: 아이오이넷세이동화손보의 주행데이터 이용 사례) - 보험사기 탐지(미국의 GPS 이용 실제 사고 위치 확인)

- (차량데이터 활용 확대(2)) 타 산업과의 공조를 확장함으로써 자동차보험상품의 서비스 확장, 복합 보험상품 개발 등을 위해 차량데이터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

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

- **자동차보험 서비스 확장**으로는 차량정비 서비스업과의 연계 강화, 교통정보 공유를 통한 사고 예방 등으로 **소비자의 편리와 안전을 제고**시킬 수 있음
- 차량관련 임베디드 보험 뿐 아니라 여행자 보험, 동승객 보험, 렌터카 대상 보험 등과 결합한 **복합 보험상품 개발**로 보험상품 가입 접근성을 강화하고 보장내역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
- 마지막으로 **차량제조업체와의 협력 강화**를 통해 차량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함으로써 차량데이터관련 보험상품 이용이 가능한 **소비자 확대 및 상품 개선 방안**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

<표 2> 차량데이터 활용 확대(2): 타 산업과 공조

자동차보험 서비스 확장	복합 보험상품 개발	차량제조업체와 협력관계 확대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차량정비 서비스업과 연계(예: 중국 대형보험회사와 스타트업 기업간 협력) - 교통관련 산업과 공조로 위험 예방 서비스 (자율주행차 인프라 정보, 도난차량 조기발견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베디드 보험(예: 테슬라, GM, Ford, 도요타 등의 보험상품) - 차량내 복합 보험상품 가입 접근성 제고(예: 차량내 여행자보험, 동승객 보험, 렌터카대상 보험 등 가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UBI 커넥티드카 가입가능 대상차량 확대 - MHYD 모델 도입을 통한 서비스 개선 등

○ (차량데이터 규제 방향) 차량데이터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**개인정보보호, 생성데이터 귀속주체, 데이터 공유 방법** 등과 관련된 규제를 사전에 마련하기 위한 **규제 방향 논의가 필요함**

- 정보공유 범위, 사용 목적, 정보사용 기간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, 접근, 소유, 책임 등의 주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, 상황별 데이터 공유 방법에 대한 규정 마련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

○ (시사점 및 결론) 보험회사는 외부업체와의 협력 강화 등 차량데이터 활용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보험상품의 개선 및 확장을 도모함으로써,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, 이를 통해 사회적 효용 증대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함

첨부: 연구보고서 『차량데이터 이용 현황 및 보험회사 시사점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